

## 제한전 성격의 6·25전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

姜 昌 國\*

1. 서 론
2. 무기 운용으로 본 '개전(주도)책임론'
3. 6·25전쟁의 성격과 무기 운용
4. 6·25전쟁의 전개 과정별 무기 운용
5. 무기 운용이 한국군 건설에 미친 영향
6. 결 론

### 1. 서 론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활발해졌으며, 주로 정치·외교사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1)</sup> 6·25전쟁에

\* 해천대학 교수

- 1) 6·25전쟁에 관한 정치외교사 중심의 연구는 이호재, 『한국 외교 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승만의 외교와 미국』(서울: 법문사, 1975);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의 발발과 기원』(박영사, 1976); 정일권,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하영선, 『한

대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6·25전쟁에 대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국방부에서 『韓國戰爭史』 제1~11권을 6·25전쟁시 치른 개별 전투에 대하여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아군·적군), 전투전의 개황, 전투경과의 개요, 전투 후의 개황 순으로 기술·편찬하였다. 육군본부에서 펴낸 전사류(戰史類), 그리고 중군기자의 참전기 등을 빼 놓으면, 학문적인 차원에서 쓰인 책은 많지 않다. 1990년대 이후 6·25전쟁 관련 군사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그러나 무기

국전쟁의 새로운 접근-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나남출판, 1990);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4)』(서울: 전예원, 199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서울: 나남출판, 1996); 소진철, 『한국전쟁의 기원-국제공산주의의 음모』(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박영사, 1997); 김영작·서주석 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집문당, 1998);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대중 외,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한국전쟁의 진실과 의미』 I·II(서울: 다할미디어, 2000);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이희진·오일환, 『한국전쟁의 수수께끼』(서울: 가람기획, 2000);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 이종학, 『6·25전쟁사-그 진실과 교훈을 찾아서』(경주: 서라벌군사연구소, 2001) 참조.

- 2) 6·25전쟁에 관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 중심의 연구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국방부, 『韓國戰爭史』(서울: 국방부, 1976); 김양명, 『한국전쟁사』(서울: 일신사, 197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① 戰爭의 背景과 原因』(200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②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戰爭史③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戰』(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참조. 정토웅은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모든 사항의 변천을 총망라하여 취급하므로 전쟁사보다는 광범위한 소재를 취급한다고 하였다. 전쟁사(戰爭史, History of Warfare)는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주로 다루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사사 범위 내에 전쟁사가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려는 폭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토웅, 군사사 연구방법론(I), 『軍史』 제24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2), pp. 10-12 및 군사사 연구방법론

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했다.<sup>3)</sup> 공학적인 측면에서 무기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연구와 전사 연구를 접목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6·25전쟁의 기원 이론의 하나인 북한의 '남침 주도설'이 무기 운용을 살펴봄으로써 입증되는가?

둘째,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무기 운용이 한국군 건설에 영향을 미쳤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북한의 '남침 주도설'을 6·25전쟁 개전 초기의 무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아 입증하는 과제이다. 특히 6·25전쟁 개전 주도의 사실은 남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살펴보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 주도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한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남한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25전쟁 개전 초기에 북한군이 선제타격계획의 시행으로 전차, 자주포, 항공기 등의 공격용 무기를 배치·운용하면서 전격기동전, 게릴라전 등을 실시하여 남한 점령을 시도한 6·25전쟁 전개 과정을 살펴보아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6·25전쟁의 성격이 '제한전쟁', '국제전적 국지전쟁'이면서 현실전화 양상을 띠는 것은 전쟁 당

사자가 일련의 국면전환용으로 무기 운용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운용 면에서도 변화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기 운용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6·25전쟁의 전개 과정이 여러 국면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전쟁의 성격과 육·해·공군 각 군별 개별 전투사를 포괄적·종합적으로 연구·평가해 보아 무기 운용 실례를 확인해봄으로써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의 성격과 핵무기 등 무기 운용의 역할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연구 주제는 무기 운용이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군 건설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인 면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 후 1961년 5월까지의 군사력 건설은 6·25전쟁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조직·무기체계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6·25전쟁 기간 중 군사력 건설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는 1·2차 사료, 즉 각 군사를 참조하였으며, 1차 자료의 군사(軍史)를 부분별로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료, 6·25전쟁 참전용사와의 면담, 6·25전쟁 관련 문헌, 국방부에서 수집·정리하여 간행한 공간사(公刊史) 등을 이용하였다.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측과 북한군을 포함한 공산군측의 자료는 기록자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중공과의 외교 관계 개선 이후 공개된 관련 자료는 물론 공산군측 참전자 수기, 증언록,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무기체계는 포괄적으로 다 참고하지는 못했다.

## 2. 무기 운용으로 본 '개전(주도)책임론'

6·25전쟁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두 학파의 기본적인 시각이 투영되었다.

(II), 『軍史』 제25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2), pp. 78-85 참조.

3) 6·25전쟁기 무기운용에 대한 연구는 강창국, 6·25전쟁기 피아 지상무기 운용, 『軍史』 제52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강창국, 6·25전쟁기 피아 항공기와 함정의 운용, 『軍史』 제58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강창국, 무기 운용으로 본 6·25전쟁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2); 나중남, "한국전쟁에 사용된 피아 주요무기 비교", 『國防과 技術』 2000년 6월호(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참조.

전통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이론은 스탈린 주도설과 중·소의 음모설 등이다. 수정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이론은 북침설,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전쟁설, 내전설 등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의 핵심 주제는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는가”, “왜 한국전쟁이 발발했는가”라는 전쟁의 기원과 원인의 규명에 집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원과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과 의문점이 남아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전통주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해석하는 외국의 저서들이 번역되고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나왔다.

미·소간의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의 대한정책은 분명한 대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명분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면서도 안보 공약과 지원정책을 최소화하였다. 미국의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꺼려왔음이 사실이다. 반면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처음부터 동구의 선례에 따라 한반도 전체 또는 북한만이라고도 그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자 북한에 정치적·군사적 지원은 물론 중공과 연계하여 북한을 지원하였다. 국제적 환경요인이 북한 내부지도자들의 내부 권력 투쟁과 공산화 통일의 신념을 자극하여 급기야 소련과 북한의 강력한 야합 속에 북한의 소위 ‘대남 선제타격’으로 나타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병력면에서 육군 182,680명, 해군 4,700명, 공군 2,000명, 해병대 9,000명으로 총 병력 198,380명이었다. 한국군은 육군 94,974명, 해군 7,715명, 공군 1,897명, 해병대 1,166명으로 총 105,752명이었다.

장비 면에서, 소총, 기관총 등 경무기를 제외하고 지상무기인 포·전차·장갑차와 항공기 등을 북한군과 비교할 때 북한군의 SU-76 자주포, 122mm 곡사포 등 348문에 비해, 한국군은 105mm 곡사포 91문이었고, 북한군의 전

차 242대<sup>4)</sup>에 비하여 한국군은 장갑차만 27대(수리 중 2대)였다. 북한군은 항공기 211대에 비하여 한국군은 비무장 항공기 22대였다.

교육훈련 면에서, 북한군은 창설 이래 수 년 동안 내부 혼란이 없이 예정대로 교육훈련에 집중하여 전·후방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전투력 향상을 기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창설 이래 2년여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동안 토벌작전으로 인하여 전투력소모는 물론 교육훈련도 불충분한 상태였다.

장비의 가동상태 면에서, 한국군은 6·25전쟁 직전 총 차량 보유 수 1,566대 중의 35%(500대)를 회수하여 기지정비 실시 중에 있었으며, 나머지 차량은 일체검사를 실시 실시하던 중에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어 1/2 이상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들은 북한군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1949~1950년 사이에 제공한 신품들을 무장하였다. 북한군 기동장비의 가동률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기타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6·25전쟁 초기의 남·북한 병력과 무기 현황을 요약·재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4) 6·25전쟁 개전 당시 T-34 전차의 대수를 제시하고 있는 전쟁사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다. 120대 <육군본부 정보국, 『1949년도 연말 종합 정보보고』(1949.12.27)>, 173대 <육군본부 정보국, 『유엔한국위원단에 보고한 자료』(1950.5.12)>, 248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1967), pp. 771~773>, 150대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pp. 10~11>, 242대 <육군본부 정보국, 『인민군 특보』(1960), p. 136>, 242대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 33>, 242대 <육군대학 교육참고 2-1, 『한국전투사』(1997), p. 30>, 242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6·25전쟁의 실상』(2000), p. 30>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242대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용호,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분석, 『軍史』 제43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 pp. 53~56 참조·재정리.

<표 1> 6·25전쟁 초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현황

구분	한국군	북한군
육군	8개 사단(22개 연대) 67,416명 지원 및 특수부대 27,558명 계 94,974명	10개 사단(30개 연대) 120,880명 지원 및 특수부대 61,800명 계 182,680명
해군	7,715명	4,700명
공군	1,897명	2,000명
해병대	1,166명	9,000명
총계	105,752명	198,380명

자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109~133;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3, 59~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Ⅰ-戰爭의 背景과 原因』(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679~68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8), p. 15 참조·재정리.

<표 2> 6·25전쟁 초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무기 현황

구분	한국군	북한군
궤도차량	장갑차 27대	T-34(85mm포) 전차 242대 BA-64 장갑차 54대 SU-76(76mm포) 자주포 176문 (M-72 Sidecar 560대)
곡사포	105mm M3 91문(3문은 사용불가)	122mm 172문
박격포	81mm 384문, 60mm 576문	120mm 226문, 82mm 1,142문, 61mm 360문
대전차화기	57mm 대전차포 140문 2.36" 로켓포 1,900문 (적 전차 파괴불가능)	45mm 550문
고사화기	-	85mm 12문, 37mm 24문 14.5mm 고사기관총 다수
경비정	경비함 28척, 보조함 43척 계 71척	경비함 30척, 보조함 80척 계 110척
항공기	L-4 8대, L-5 4대 T-6 10대, 계 22대	YAK-9/11/18, IL-10, IL-2 전투기 연습 및 정찰기, 계 211대

자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131~133;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3,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Ⅰ-戰爭의 背景과 原因』(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680~681;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요약통사(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0), p. 11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8), p. 11 참조·재정리.

북한의 남침공격계획<sup>5)</sup>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전쟁 개시 2일차에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은 그들의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2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하에 세 가지 단계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sup>6)</sup> 이 남침공격계획의 명칭은 소위 '선제타격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표 3> 북한군 '3단계 남침공격계획(선제타격계획)'

단계		진출선	작전중심	작전기간
1단계	한국군 주력 포위격멸단계	수원-원주-삼척	90km	5일
2단계	한국군 증원병력 격멸 및 전과확대 단계	군산-대구-포항	180km	14일
3단계	남해안 진출 및 한국군 잔적소탕 단계	남해안 지역	80km	10여일
"38도선 남해안까지 작전중심 350km를 한 달 만에 수행하여 제1단계 작전 완료"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Ⅱ-38線 初期戰鬪와 遲延作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8.

5) 유성철, '6·25때 北韓軍 작전국장-나의 證言', 한국일보, 1990.11.9.

6)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6.20); 『라주바에프 보고서』Ⅰ, pp. 135~137; 러시아 국방부 저·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오비기획, 2002), p. 31.

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sup>7)</sup>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 군사고문관이 주동이 되어 남침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북한군의 '3단계 남침공격계획(선제타격계획)'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3. 6·25전쟁의 성격과 무기 운용

#### (1)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기 무기 운용

제한전쟁이란 한정된 정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병력 및 달성해야 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을 말한다. '제한전쟁'이란 용어는 클라우제비츠가 처음 사용한 이론적 개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최초의 제한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마셜 장군은 1951년 5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전쟁의 특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이것을 제한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한정된 상태이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무기인 핵력(核力)에 있어서 1945년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 공격시 운용한 이후 1949년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전쟁은 핵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한국전쟁이 결과에서 제한된 목적의 전쟁이 가능하여 소위 "승리 없는 평화"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sup>8)</sup>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38線 初期戰鬪와 遲延作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4 참조.

8)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핵무기는 그 실제상의 사용이라는 수준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모색에 그 관심의 적(的)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곧 억지(deterrence)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억지는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나, 고대의

6·25전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즉 무반동총으로부터 8인치 자주포, B-28폭격기, F-86제트기, 네이팜탄 등의 주요화력이 동원되었으나 핵무기만은 극히 제한하였다. 전쟁 초기 6개월간에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한 바 있으나 그 사용은 전쟁확대 방지책으로서 금지되었다.<sup>9)</sup>

핵의 사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또한 재래식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전쟁 양상은 한층 더 한정적인 것으로 되고, 이에 따라 국지전쟁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탕트 정책 하에 있어서 강대국 간의 전쟁(major war)은 회피가능하나 소규모의 국지전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핵시대에 있어서 제한전이란 우선 피·아 간에 전쟁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의 완전한 격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아측의 희생의 대가가 비합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전쟁의 목적과 의의를 상실한, 단지 싸움을 위한 싸움인 상호자살행위만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과 소련의 핵대결 상태에서 전쟁발발 억제를 위한 '상호확실 파괴'에 잘 나타나고 있고 굳이 핵대결이 아니라도 그것으로 확전이 될 수 있는 재래전의 경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sup>10)</sup> 1950년 6월 25일 구 소련식 훈련을 받

정치단위체간에서도 존재했던 광의의 것으로, 심리적 및 기술적 차원을 갖는 개념으로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Raymond Aron, *Clausewitz-Philosopher of War*(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조성환, "레이몽 아롱의 전쟁 및 전략사상 연구-현대전쟁의 클라우제비츠적 해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 81~83 참조.

9) 강병규, 『한국전쟁의 정책환경』(서울: 한림출판사, 1970), p. 84.

10)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개해온 핵억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공멸에 대한 위협이다.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방어가 불가능하며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서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핵전쟁은 억제되어 왔다. '상호확실 파괴(MAD, Mass Assured Destruction)'를 바탕으로 한 핵억제전략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기는 했지만 위협하고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인류가 절멸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선제공격의 위력이 워낙

은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어느 면에서 한국전쟁은 그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인 전쟁이었다.<sup>11)</sup> 미군이 38도선을 넘어온다면 참전하겠다고 경고했던 중국 공산군이 후일 이 전쟁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압록강 이북의 지역은 유엔의 지상군이나 공군에게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에야 종료되었다. 유엔군의 총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를 합친 숫자는 약 40만 명이었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서부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서독이 무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서독의 무장으로 유럽은 두려움을 느꼈다.

6·25전쟁은 핵무기가 이미 출현한 시기에 치러진 전쟁이다. 이 핵무기 체계가 보유한 자체 속성과 능력은 전쟁사에서 현대라는 시대 구분을 의미 있게 해주었다. 핵무기는 전쟁에 동원될 수단으로 하나로 개발되고, 태평양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일본에 대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위력이 입증된 바 있는 핵무기체계는 그때까지 치러온 전쟁을 '재래식 전쟁'이라는 범주에 속하여 몰아넣음으로써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추가하여 현대 전쟁을 '이원화'시켜 놓았다. 재래식전쟁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 전쟁은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외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흔하게 동원되어 온 전쟁이었다.<sup>12)</sup>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현대의 전쟁으로서 재래식 전쟁은 종교, 이념, 정치, 경제, 심리 및 영토 등과 연관된 영역에서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무력사용 행위로서 핵무기 출현 이전에 존재해 온 형태의 전쟁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는 선제공격의 경쟁적인 선택이 우려된다. 선제공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적의 선제공격을 허용한 상태에서 대규모 보복공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억제전략(Maximum Deterrence)'에 의하여 대규모 핵보유가 필요하여 핵경쟁을 유발한다.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서울: 법문사, 2005), pp. 167~189 참조.

1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음·승영조 옮김, 『전쟁의 역사』 II(서울: 책세상, 1995), p. 846.

12) 온창일, 『전략론』(서울: 집문당, 2004), p. 163.

## (2) '국제전적 국지전' 성격의 6·25전쟁기 무기 운용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5년 후에 발발한 국제전쟁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어떤 방식이든 한국전쟁에 개입 또는 관련되어 있었다.<sup>13)</sup> 즉 유엔의 깃발 아래 참전한 17개국과 북한, 중공, 소련 등 교전국가의 수는 20개국에 이른다.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병원선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한 나라들을 헤아려 보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그 밖의 나라들은 중립을 지켰는데, 20세기의 국제사회에서는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동·서 양진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의 중립이란 지구의 어느 한구석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초월한다는 고전적 국외중립이 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세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한국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한 나라들은 교전 양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이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계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쟁의 타결을 모색하였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되도록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했다.

둘째, 한국전쟁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관련된 세계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느 나라도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sup>14)</sup>

소련은 실제로 전투에 직접 참여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했다. 중공은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의용군만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유엔을 앞장세워 침략자에 대한 자유 수호임을 강변하였다. 유엔이 창설된 직후 한국전쟁의 경우

13) 이창훈, "한국전쟁과 강대국 정치",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국제정치논총특집(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6), p. 261.

14) 라종일, "한국전쟁과 전후 세계정치", 『軍史』 한국전쟁 40주년 특집, 제20호(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6), pp. 303~304.

에 단 한번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경찰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전쟁을 통하여 제한전쟁을 체험했다.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여타 교전 당사국들은 암암리에 전투행위를 한반도에만 국한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중공군의 개입을 본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확전의 지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그를 즉각 해임시켜버린 것만 보아도 그렇고 부분적인 제한사항을 제외하면 교전국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유지와 더불어 통상관계까지도 지속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들의 세계전략을 대거 전환하면서도 국내생활은 정상적으로 계속되었다.

한국전쟁이 세계전쟁이면서도 제한전쟁이 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제1·2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유보된 전쟁수단과 능력이 있었고, 유보된 전쟁과 군사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핵무기가 출현한 후 “공포의 균형”으로 특징지어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지적인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싸워지고 매듭 지워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sup>15)</sup> 즉 제한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애초부터 교전 양측이 전쟁 전의 현상수준에서 상호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거래를 가능케 했으며, 유엔군은 만주를 성역화 시켰으며, 공산군은 소련 MiG-15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인천의 유엔군 보급기지에 대한 공중공격을 금지하였다.

넷째, 한국전쟁이 동·서 양진영의 대결이 이념으로 치장되어 열전화한 최초의 경우였다. 종래의 전통적인 전쟁과는 달리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같은 나라에서도 이념적인 입장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해석이나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서유럽의 공산당이나 그 동조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하고 일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공산측의 공식입장을 본국에 반영하는 데 종사하였다. 한국전쟁의 수행이나 종결과정 그 영향에 있어서 이념은 주요문제가 아니었고 주요한 것은 결국 미·소

두 강대국이 목적인 영향력의 확대, 세력의 추구 등과 같은 패권적인 역할 행사에 관한 인식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4. 6·25전쟁의 전개 과정별 무기 운용

6·25전쟁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는 불일치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전쟁 수단을 제한했다. 이것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전략 논쟁과 파문의 근본요인이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전쟁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제정세 추이의 변화와 정치적 목적이 변경됨으로써 한국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쟁지도 원칙이 미비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제한하고 전쟁 전개 과정이 여러 국면으로 변동됨에 따라 군사목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마저 변경되었다. 6·25전쟁의 전개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1950. 6. 25~9. 15)에 미국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수세적이었을 때 유엔군사령부의 정치적 목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38선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목표는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산군의 격퇴와 38선 이북 지역의 보급능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북한공산군이 불법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당시에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은 군사적 방도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확대가 3차대전의 유발 즉 중공군 개입의 구실이 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소극론이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제2단계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1950. 9. 15~11. 25)에 유엔군사령부의 정치적 목적은 10월 7일 유엔 결의에 입각하여 군사적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현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합참과 국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

15) 은창일,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6·25전쟁의 수행과정”,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총 제5집(서울: 평민사, 1989), p. 200.

가안정보장회의는 군사목표를 제한하였다. 즉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지상군 작전은 허용했지만 중공·소련군 개입 징후가 없을 때에 한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만 국경지대의 병력 운용은 비(非)한국군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해·공군의 활동도 금지했다. 그 같은 핵심적인 전쟁수행 방침은 미 합참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현지사령관에게 명령하였다. 따라서 현지지휘관은 적의 전략·전술 및 전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이고 임기응변적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다.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전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한·만 국경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군사목표 제한은 정치적 목적과 완전히 유리되는 것이었다.

제3단계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1950. 11. 25~1951. 6. 23)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른바 '전적으로 새로운 전쟁(an entirely new war)'에 봉착하였을 때 유엔은 중공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 응징을 정치적 목적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코자하는 현지지휘관의 건의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군사적 교착상태'에 군사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군사작전에 있어서 현지사령관을 철저히 경계하고 마침내 맥아더를 해임한다는 트루먼의 발표는 1951년 4월 1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알려졌으며, 곧이어 맥아더 장군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제4단계인 전선교착기(1951. 6. 23~1953. 7. 27)에 정치적 목적은 전쟁 종결과 휴전이었으며 군사목표는 휴전협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에 두었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유엔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일부만을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실질적인 제한패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의 실질적 분리 및 일관성 있는 전쟁 지도원칙이 결여된 것이다.

제한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쌍방이 전쟁 전의 현상수준에서

상호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거래를 가능케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치러진 한국전쟁에 있어서 그 수단의 제한도 본질적으로는 군사전략과 정치전략의 괴리였는데 특히 군사적으로는 작전 목표의 제한, 작전

<표 4> 6·25전쟁 전개 과정별 전쟁 지역과 전투의 성격

전쟁 국면	전쟁 지역	전투의 성격	주요 사항
북한군 남침기 (1950. 6. 25 ~ 9. 15) 82일(2개월20일)	38도선 ↓ 낙동강선	•북한군의 공격 •한국군의 후퇴 •낙동강방어선 전투	6. 25 북한군 남침 6. 28 서울 실함 7. 7 유엔군사령부 창설 8월~9월 중순, 낙동강선에서 치열한 공방전 전개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1950. 9. 15 ~ 11. 25) 71일(2개월10일)	압록강선 ↑ 낙동강선	•한국군·유엔군의 반격 •북한군의 후퇴	9. 15 인천 상륙작전 9. 28 서울 수복 10. 1 한국군 38도선 돌파 10. 26 한국군 선두, 압록강(초산) 도달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 (1950. 11. 25 ~ 1951. 6. 23) 210일(6개월28일)	압록강선 ↓ 38도선 남쪽	•중공군 개입 •한국군·유엔군의 후퇴	10월 하순, 중공군 약30만 명 북한지역에 잠입 11월 하순, 중공군 총공격, 국경선직전 유엔군후퇴 12. 24 홍남철수작전 51. 1. 1·4후퇴
전선교착기 (1951. 6. 23 ~ 1953. 7. 27) 764일(25개월4일)	휴전선 부근 ↑ 38도선 남쪽	•38도선 북쪽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2년간의 고지전투 계속)	51. 7. 10 휴전회담 시작 53. 4. 26 상병포로 교환 6. 18 반공포로 석방 7. 27. 10:00 정전협정 조인

자료 : 국방부, 『韓國戰爭史』 제1~11권(서울: 국방부, 1970~19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109~133 참조·재정리.



지역의 제한, 무기 운용의 제한이라고 본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나 핵무기만 사용만은 극히 제한되었다. 작전 초기 6개월간에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한바 있으나<sup>16)</sup> 그 사용은 전쟁확대 방지책으로서 금지되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전이면서 국제 전적 국지전 양상으로 치러진 6·25전쟁의 단계별 주요 작전과 무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 단계별 전쟁 지역과 전투의 성격을 요약·정리하면 <표 4>와 같다.

### (1) 북한군 남침기 무기 운용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1950. 6. 25~9. 15)에 미국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수세적이었을 때 유엔군사령부의 정치적 목적은 6·25의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38선의 경계를 회복하는데 제한되었다. 군사목표는 38선 이남으로부터의 북한 공산군을 격퇴하는 것이었으며, 38선 이북지역의 보급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북한공산군이 불법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은 군사적 방법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확대가 3차 대전의 유발, 즉 중공군 개입의 구실이 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소극론이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6·25전쟁의 기원 이론 중 하나인 북한의 '개전(주도)책임설'은 무기 운용을 살펴본 결과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특히 6·25전쟁 개전 주도의 사실

16)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미국이 두 번째로 원자폭탄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전쟁은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There has always been active consideration of its use …)"는 내용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0, vol. VII*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1261~1262 참조.

은 남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났다. 북한군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남한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25전쟁 초기에 선제공격계획을 시행할 때 T-34 전차, SU-76 장갑차주포, 120mm 화포, 항공기 등 주요 무기를 갖춘 20만 병력이 전격기동전, 게릴라전 등으로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군사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평가해 볼 때 '개전(주도)책임설'이 입증된다.

전략·전술 면에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속전속결 전략으로 T-34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20만 병력이 선제공격남침 타격작전을 감행하였으며, 한국군은 북한군의 남침시 수세방어전략을 펴면서 제공권이 장악한 상태에서 대전전투에서 새로이 출현한 3.5인치 대전차 로켓포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으나,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여 유엔군과 더불어 내선작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 (2)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무기 운용

북한과 소련은 한국이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노려, 전쟁을 단기간화 할 경우 미국이 쉽사리 6·25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한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적화야욕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하였다. 유엔<sup>17)</sup>은 이

17) 유엔과 대한민국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부수립 이전의 1947년부터이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남침을 개시한 6·25전쟁이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지 하루만인 6월 26일 04:00(25, 14:00 현지시간)에 유엔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June 25, 1950)'이 가결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유엔 결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결의의 초점

를 단호히 대처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한 5개국은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유엔의 깃발 아래 6·25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21개국의 국가별 참전일자, 참전규모 및 피해 현황을 요약·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6·25전쟁 당시 유엔의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은 1950년 7월 14일 유엔 사무총장이 52개 유엔 회원국<sup>18)</sup>에 지원을 요청하자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이 의무보급, 식량 등 비군사원조 제공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결과 1952년 9월 15일까지 유엔회원국 45개국 정부와 비회원국 3개국 정부로부터 약 475,800,000달러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이 제공되었다.<sup>19)</sup>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전투부대 파병, 의료부대 및 시설지원, 그리고 물품을 원조한 나라를 종합·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5> 유엔군 참전 규모 및 피해 현황

구 분	국가명 (참전일지순)	참전 일자	참전 규모	참전 연인원	전사자	부상자
전투부대 파견국	미 국	1950. 6.27	• 제8군, 3개군단 이하 8개 사단 • 제7함대본부, 해병대 제1사단 • 3개공군 20개 비행단 70개 비행대대	1,789,000	*33,642	92,134
	영 국	1950. 6.30	• 보병 2개 여단 • 군함 17척	56,000	1,086	2,674
	오스트레 일리아	1950. 7. 1	• 보병 2개 대대 • 군함 4척 • 전투비행 1개 대대 • 수송기 1개 편대	8,407	332	1,216
	네덜란드	1950. 7.16	• 보병 1개 대대 • 군함 1척	5,322	124	645
	캐 나 다	1950. 7.26	• 보병 1개 여단 • 군함 3척 • 수송기 1개 편대	25,687	516	1,212
	프 랑 스	1950. 7.29	• 보병 1개 대대 • 군함 1척	3,421	269	1,008
	뉴질랜드	1950. 7.30	• 포병 1개 대대 • 군함 2척	3,794	43	79
	필 리 핀	1950. 9.19	• 보병 1개 대대	7,420	112	229
	터 키	1950.10.17	• 보병 1개 여단	14,936	724	2,068
	태 국	1950.11. 7	• 보병 1개 대대 • 군함 3척 • 수송 1개 편대	6,326	130	1,139
	남 아 공	1950.11.16	• 전투비행 1개 대대	826	35	
	그 리 스	1950.12. 1	• 보병 1개 대대 • 수송기 1개 편대	4,992	186	543
	벨 기 에/ 룩셈부르크	1951. 1.31	• 벨기에 : 보병 1개 대대 • 룩셈부르크 : 보병 1개 소대	3,498/83	106/2	336/13
	에티오피아	1951. 5. 6	• 보병 1개 대대	3,518	122	536
	콜롬비아	1951. 5. 8	• 보병 1개 대대 • 군함 1척	5,100	213	448
소 계			1,938,330	37,642	104,280	
의 료 지원국	스 웨 덴	1950. 9.28	• 적십자병원	160		
	인 도	1950.11.20	• 제60야전병원	627		
	덴 마 크	1951. 3. 7	• 유틀란디아 호 적십자병원선	630		
	노르웨이	1951. 6.22	• 이동의과병원	623	3	
	이탈리아	1951.11.16	• 제68적십자병원	128		
소 계			2,168	3		
계			1,940,498	37,645	104,280	

자료 : 국방부, 『韓國戰爭史』 제10~11권(서울: 국방부, 1979~198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12); 전쟁기념관, '유엔참전 21개국 피해통계' 관련국가 실사자료(1999, 미발행)에서 재정리.

\* 미국군 전사자 인터넷자료 www.archives.gov (검색일: 2006.8.20)

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는데 있었다. 6월 28일 13:45(27일 11:45 현지시간)에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The Military Assistance to Republic of Korea)이 결의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파괴에 대한 최초의 집단 안전보장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동시에, 한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 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공산군) 대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제1권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pp. 942~945, 954;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74~175; 국방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1, 15~17; 김계동,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변화(1948~1950)-철수·불개입정책에서 한국전 참전으로의 결정과정, 『軍史』 제20호 한국전쟁 40주년 특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 168~182 참조.

- 18) 당시 유엔 회원국은 총 59개국이었으나 이미 원조를 제공한 미국과 지원결의안에 반대한 유고슬라비아, 소련진영 5개국을 제외한 국가이다.
- 19)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서울: 국방부, 1953), p. C109.

<표 6> 해외 원조국(물품원조국 포함) 현황

국 명	원조 사항	국 명	원조 사항
베네수엘라	10만 불 가치의 의료	캐 나 다	군함 3척, 1개 항공수송대, 상업시설
중화민국 (대만)	백미 1,000톤, 석탄 1만 톤, 소금 3,000톤, DDT 20톤	이스라엘	약품 마취제, 기타 의료품
칠 레	동, 소금, 전라물자 종목 미상	이탈리아	야전병원
코스타리카	해군 및 공군기지 지원병 수계보유	레 바논	5만 불
쿠 바	사탕 2,000톤, 알콜 10,000가론, 혈청	리 비 아	천연고무
에콰도르	의료물자(종목미상), 쌀 1만 톤	멕시코	두류
엘살바도르	지원병(훈련과 장비, 미군에 요청) 경제 원조	네덜란드	구축함 1척, 500톤의 두류
에티오피아	지상군	노르웨이	상선
프 랑 스	군함 1척, 1개 보병대대, 의료품	파키스탄	소맥 5,000톤
그 리 스	수송기 6대, 지상부대	파 나 마	지원병 분견대(훈련 기지)
아이슬랜드	간유 125톤	파라과이	1만불 가치의 의료품
인 도	야전구호대, 황마의 40만개 (현 압박부대), 의료품	필 리 핀	전차 17대, 대전차식 1대, 전차 1개 연대, 비누 5,000개, 와구진 혈청 500점, 쌀 1,000톤, 혈청 추가 보급
룩셈부르크	지상군	스 웨 덴	야전병원
덴 마 크	의무부대	태 국	1개 보병 전투부대, 적십자 관계 인사 20명, 백미 4,000톤, 수송선 2척
아르헨티나	우육통조림	터 키	1개 보병 전투부대, 와구진 혈청 (혈액 대용품)
오스트레 일리아	1개 비행중대, 군함3척, 지상부대, 의료품	남아프리카 공 화 국	1개 비행중대
벨 기 에	항공 수송기, 보병 대대	영 국	지상부대 및 해군, 소금, 약품 60만 톤
볼리비아	장교 30명(보류)	미 국	육·해·공군, 기타
브 라 질	500만 불, 크루제이 약 270만 불 (수락 보류)	우루과이	20만 불, 모포 7,000매

자료: 국방부, 『韓國戰爭史』 제10~11권(서울: 국방부, 1970~1980); 김명섭, 6·25전쟁과 파병 외교: 미국 이외의 20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전쟁 연구학회 학술세미나』(서울: 한국전쟁연구학회·조선일보사, 2003), pp. 69~96에서 재정리.

제2단계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1950. 9. 15~11. 25)에 유엔군사령부의 정치적 목적은 10월 7월 유엔 결의에 입각하여 군사적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현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합참과 국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군사목표를 제한하였다. 즉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지상군 작전은 허용되지만 이는 중공·소련군 개입의 표시가 없을 때에 한하는 것이고, 한·만 국경지대에 있어서의 비한국군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해·공군의 활동도 금지되었다.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전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한·만 국경지대를 확보하는 확전전략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군사목표의 제한은 정치적 목적과 완전히 유리되는 것이었다.

무기 운용 면에서 지상 작전에서 운용되었던 다양한 무기들은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작·개량되어 활약했던 무기들이며, 지상무기·함정·항공기 운용 관련 전쟁이론을 시험하거나 이를 구사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6·25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무기의 계승장은 물론 신무기의 출현으로 한반도 역시 무기의 시험장이 되었으며, 무기 운용 이론을 구사한 전쟁이었다.

전략·전술 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대우회기동 전략으로 지상군 75,000명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261척의 함정을 이용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이어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개전 초기 3일간 우세한 공중활동을 했으나 제공권을 상실하였다. 1950년 10월 원산 상륙작전, 12월 흥남 철수작전 당시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항공모함의 활약상을 평가해 볼 때, 제해권 장악의 중요성과 항공모함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또한 유엔군은 전략폭격을 대구 지역에 실시했다. 유엔군의 확전전략으로 북으로 진격시 북한군은 북으로 후퇴하면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전술로 맞서기도 하였다.

### (3)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 무기 운용

중공군은 1950년 10월 6·25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1953년 7월 정전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의 전개과정과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공<sup>20)</sup>이 6·25전쟁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50년 8월 17일 주유엔 미국대표 오스틴이 유엔군의 군사목표가 진전 원상회복, 즉 38선 회복에 있지 않고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면서부터였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1950. 9. 15)에 38도선을 돌파(1950. 10. 1)하여 국경선인 압록강 변까지 진격했을 때 유엔군의 복진을 중공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1950년 10월 중공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爲國)을 명분으로 6·25전쟁에 개입할 당시 중공의 지상군은 5개 야전군 예하에 20~22개 병단, 71~75개 군, 210~245개 사단으로 총병력은 2,438,000명으로 추정된다. 1950년 10월 19일부터 항미원조지원군(抗美援朝志願軍)<sup>21)</sup>이란 이름으로 한·만 국경선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은 제4야전군 제13병단 소속 6개 군으로서 초기 병력은 약 18만 명에 이르렀다. 11월에는 제13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둥반도에서 만주로 이동한 제3야전군 소속 3개 군의 12만 명이 한·만 국경선을 넘어 장진호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주로 안동-신의주, 청성진-삭주, 집안-만도진, 그리고 임강-중강진의 4개 경로를 이용하여 한만 국경선을 넘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은 야전군 예하에 5개 병단, 25~27개 군, 75~81개 사단의 약 100만 명이 개입하였다.

20)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을 선포(주석 毛澤東, 수도 北京)하였으나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된 상황은 아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당시 중화민국(국민당)이었다.

21) 모택동이 팽덕회에 보낸 서한(1950. 10. 8, 중국어)에 의하면,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모택동이 '팽덕회 등 장군에게 13병단 소속 병력과 그 지원병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해서 출동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은 팽덕회가 맡아 6·25전쟁에 개입하였다.

제3단계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1950. 11. 25~1951. 6. 23)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른바 '전적으로 새로운 전쟁'에 봉착하였을 때 유엔은 중공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 응징을 정치적 목적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코자하는 현지 지휘관의 건의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군사적 교착상태'에 군사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군사작전에 있어서 현지사령관을 철저히 경계하고 마침내 1951년 5월 맥아더 장군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전전상태로의 복귀였는데 군사적 상황에 따라 목표의 변화를 보였지만, 전쟁과 관련된 판단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유형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무기 운용 면에서 6·25전쟁 당시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 즉 57mm 무반동총으로부터 8인치 자주포, B-28 폭격기, F-86 제트기 등을 운용하였으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만을 제한하도록 했다. 유엔군의 핵(核) 사용 억제로 공중타격에 의한 지상작전을 지원하였으나, 중공군은 무기 운용의 제한으로 인해전술로 가능한 작전술을 구사하였다. 교전지역 면에서 미국은 소련을 의식하고 중국과의 접전지역을 한반도로 제한했으며, 중국의 정치적 목적이 한반도 공산화가 아닌 북한 공산정권의 유지라는 틀 안에서 수행된 제한전쟁이었다. 그러나 교전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전이 되었다.

### (4) 전선교착기 무기 운용

제4단계인 전선교착기(1951. 6. 23~1953. 7. 27)에 정치적 목적은 전쟁 종결과 휴전이었으며 군사목표는 휴전협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에 두었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및 유엔군의 실질적인 제한패배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원인은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의 실질적 분리 및 일관성 있는 전쟁 지도원칙이 결여된 때문이었다.

<표 7> 6·25전쟁 전개 과정별 정치적 목적·군사목표·  
무기 운용의 상관관계

전쟁 단계	정치적 목적	군사 목표	전략·전술	무기 운용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	•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 회복, 38선 경계 회복	•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 산군 격퇴, 38선 이북 지 역의 보급망 파괴	• 속전속결전략 (선제기습전) • 수세방어전략 (내선작전)	• T-34전차 • 3.5" 로켓포 • 항공기 • 전투기(Yak)
제2단계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 유엔 결의(10·7)에 입각하여 군사적 방 도에 의한 통일 한 국의 실현	• 38선 이북지역 지상군작 전 허용, 단 중공·소련 군 개입 표시 없을 때. 한·만 국경지대에 비한 국군 사용금지, 만주에 해·공군의 활동 금지	• 우회기동전략 (인천상륙작전) • 제공권(전략폭격) • 배합전술	• 전투기(F-86) • 폭격기(B-29) • 항공모함
제3단계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	•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응징	• 안정된 군사적 교착상태	• 인해전술 • 대량소모전	• 전투기(MiG-15) • 헬기(H-13) • (핵무기사용 억제)
제4단계 전선교착기	• 전쟁 종결·휴전	• 협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	• 장기지구전 (고지쟁탈전)	• 재래식 무기
상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의 변화: 북한군 남침기(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 회복, 38선 경계 회복: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산군 격퇴, 38선 이북지역의 보급망 파괴) →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유엔 결의(10·7)에 입각하여 군사적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현: 38선 이북지역 지상군작전 허용, 단 중공·소련군 개입 표시 없을 때. 한·만 국경지대에 비한국군 사용금지, 만주에 해·공군의 활동 금지) →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재반격기(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응징: 안정된 군사적 교착상태) → 전선교착기(전쟁 종결·휴전: 협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li> <li>• 전략의 변화: 섬멸전 → 억제전략(핵무기 사용 억제)</li> <li>• 전술의 변화: 전격기동전(속전속결전), 수세방어전략(내선작전) → 우회기동전략 → 대량소모전·장기지구전</li> <li>• 무기 운용의 변화: 수냉식 → 공냉식 기관총, 신형전차(T-34)·대전차무기(3.5" 로켓포)·제트기(MiG-15, F-86) 등장, 항공모함·헬기(OH-13) 운용, 핵무기사용 억제</li> </ul>			

자료 : 국방부, 『韓國戰爭史』 제1~11권(서울: 국방부, 1977~1980); 김철환·육춘택,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서울: 양서각, 1997), 부록 #2에서 재정리.

6·25전쟁의 전개 과정은 동일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국면은 더욱 복잡화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 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으며, 특히 정전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상호 억지와 상호 경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6·25전쟁의 국면별 전투 작전의 형태가 상호 달랐으며, 무기 운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투작전의 형태와 연관되어져 운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6·25전쟁의 국면변화와 함께 무기 운용은 복합적으로 변화되었다.

무기 운용은 전쟁과 정치적 목적과도 상호작용이 있다. 6·25전쟁은 중국에는 정전(停戰)에 의해 남·북한의 분단은 고정화되었다. 3년 동안의 전쟁은 개전 이전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차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미국은 현상유지전략을 구사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중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전쟁을 일으킨 북한 측에서도 전쟁의 수행이 의도된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등 한 반도를 하나의 동·서 이념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여기어 직접 미국과 교전을 피했다. 소련도 미국과 직접 교전을 하지 않고 하나의 대리전화 하면서 유럽과 한반도라는 두개 지역에서 동·서 양진영을 관리하는 형태로 한반도 문제를 고착화시켰다. 6·25전쟁의 전개과정별 정치적 목적·군사목표·무기 운용의 상관관계를 요약·정리하면 <표 7>과 같다.

## 5. 무기 운용이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미친 영향

### (1) 6·25전쟁 기간 중 군사력 건설

한국군의 창군 이래 미국의 대외원조법의 변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며, 그 효시는 1949년 6월 30일에 철수한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한 5,6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였다. 이는 비록 국가간의 원조협정에 의한 정상적인 원조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1949년 10월에 체결된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MDAP,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sup>22)</sup>에 근거한 상호방위원조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때 한국군이 인수한 무기는 약 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전차나 성능이 우수한 대전차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105mm 야포가 최대 구경의 화포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무기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병력을 약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M24 전차, 155mm 견인곡사포, F-51 전투기 등의 무기를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지원 대상병력만이 6만 5천명 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뿐, 추가적인 무기의 지원은 대한 군사정책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 정부는 1월 26일에 비로소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sup>23)</sup>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대외원조대상국의 일원이 되어 정상적인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1950년 미국의 대한방위원조는 3월 15일에 2,674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나, 미국의 유럽우선정책에 따라 1,097만 달러가 승인되었다.<sup>24)</sup>

22)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1949. 10)에 의거한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MDAP,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의 시행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시행하게 된 법이다.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서울: 나남, 1990), p. 434.

23)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1950. 1. 16)은 1949년 4월에 북대서양조약에 가입하여 그 해 10월에는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하고 NATO 가맹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협정문은 육군본부 팸플릿 70-22-1,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 158~159; 국방부, 『國防史』①(서울: 국방부, 1984), pp. 529~530 참조.

24)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 316.

6·25전쟁 기간 중 한국군이 받은 대부분의 미 군사원조는 직접군원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규모는 한국은행 발행 『경제연감·4290(1957년)』에 의하면 연간 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뿐,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쟁 기간 중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인 미 극동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미군·유엔군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군수지원도 미군의 군수지원체통으로 미군 및 유엔군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군원자금의 각 국가별 분리가 곤란하게 되어, 미국이 이 비용을 대외원조법이나 군사지원계획에 의한 예산으로 추전하지 않고, 자국군의 급식·보급·구송·군비의 일부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에는 직접군원 위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군원은 몰차도입과 군원교육 등에 국한되었으며, 그 규모는 1천 5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6·25전쟁 기간 중 한국 육군은 3개 군단에 10개 사단을 창설함으로써 6·25전쟁 개전 초기에 8개 사단에 지나지 않았던 병력이 1953년 7월 27일 정전 당시에는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확충되어 그 총병력은 1953년 12월말 현재 613,670명으로 증강되어 병력면에서 5배 이상의 팽창이 있었다.<sup>25)</sup> 6·25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계 막강 대군으로 육성 강화되었다. 중공군도 미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쟁을 경험했다면 한국군 역시 질적·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다고 본다.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지원으로 선진무기로 무장되었으며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여 현대적인 군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sup>26)</sup>

25) 한국 육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팸플릿 70-22-1,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 404~417;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p. 331~388 참조.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59~85;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p. 331~435 참조.

## (2) 6·25전쟁 후 1961년 5월까지 군사력 건설

6·25전쟁 후 남·북한 대치상태는 계속되어 미군과 유엔군도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대한군사지원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그 후 유엔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미군의 주력이 재배치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sup>27)</sup>을 비준하고,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사록에 서명(1954. 11. 17)함으로써, 미국의 대한군사지원은 제도적이며 계획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sup>28)</sup>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에서 한국이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골자는 한국과 미국의 어느 당사국이 태평양지역에서 침략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독립과 안전을 위협받을 경우에는, 타당사국은 그것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그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전쟁이 재발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협정의 정신과 유엔참전국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를 유지하며, 그 예하에 주한 미 제8군, 주한공군, 그리고 주한해군을 주력으로 일부를 직접 방어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후 수행해오던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책임을 1955년도에 한국군에 이양하고, 장비원조도 그들의 육·해·공군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대의원조자금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라, 1956년도부터 미 합참은 한국군의 전투 병력을 대의원조의 기준 병력으로 인가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한 직접군원은 군사지원계획(MAP)에 의한 군원, 즉 정상군원으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군원체제가 수립된 후, 한국군은 1956년도에 2억 달러를 비롯하여, 1961년도까지 연평균 2억 3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며, 1954년과 1955년도에 받은 2,300만 달러(기간 중 직접군원은 미포함)를 포함하여 전후(1954~1961) 총 13억 8천 4백만 달러의 정상군원을 받았다.<sup>29)</sup>

미국의 대의원조정책의 변화로 195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해 나갔다. 1959년도에는 미국측의 제의에 이해 군원이관문제를 협의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대한군사원조물자 중에서 피복·급식·개인장구·군사무용품 등을 한국측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군원이관은 미국의 대한군원계획의 군유지비에 속하는 물자 중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국제무역으로 획득 가능한 물자는 지원을 받는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곧 미국측의 군원이 감소되는 반면, 한국측의 국방비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9년도에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7.5%이었으며, 정부일반예산의 45%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군원이관으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는 한국측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상의 중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1년도에 출범한 당시의 한국정부는 군원이관을 연기하기 위하여 대미협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군원이관계획과 실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7)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 83.

28)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미 상원 비준(1954. 1. 26) 10개월 후인 1954년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어 한·미군사동맹의 법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연합방위 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정부간 또는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내용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154~1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韓美 軍事 關係史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64~571, 731~732 참조.

29)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p. 84, 323.

한편,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육군이 3개 군단 18개 사단, 해군이 1개 함대, 해병대가 1개 전투단, 공군이 2개 비행단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총 병력은 약 600,000명에 이르렀다. 장비 면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중장비와 전투용 함정 및 전투기를 갖추게 되었다.

정전 후 한국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1954년 11월 17일에는 한·미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정전 후에도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전 후 북한은 정전협정서의 군비증강 금지조항(제13조 D항)을 위반하여 군사력 건설을 하자, 1957년 6월 유엔군측도 이 조항의 폐기선언을 함으로써 한국군은 신형무기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을 하게 되었다.<sup>30)</sup> 이러한 군사력 건설이 한·미 양국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1958년에는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720,000명에서 630,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 국방부는 93,000여 명의 육군병력을 감축하는 반면에 공군에 3,000여 명을 증원하여 합계 90,000명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한국군은 무기의 질적 현대화와 화력의 증강을 기하면서 1960년대를 맞이하였다.

## 6. 결 론

6·25전쟁 전개 과정과 무기 운용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6·25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에 의한 개전의 정치적 목적이 '남한의 공산화'

이며, 군사 목표는 '남한 점령'이라는 단일 목표였다. 그러나 전쟁 전개 과정은 동일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국면은 더욱 복잡화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 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으며, 특히 정전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상호 억지와 상호 경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6·25전쟁의 국면별 전투 작전의 형태가 상호 달랐으며, 무기 운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투작전의 형태와 연관되어져 운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6·25전쟁의 국면변화와 함께 무기 운용은 복잡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기 운용이 남·북한 군사력 건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의 전개 과정의 각 국면마다의 국제적인 조치들은 더욱더 한반도 문제를 더욱 구조화되도록 만들었으며, 남·북한 관계의 냉전의 구조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이러한 6·25전쟁의 경험이 반영되었다. 냉전이 구조화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근대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군사력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군사적 동맹 체제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한국의 현대국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의 기원 이론 중 하나인 북한의 '개전(주도)책임설'은 무기 운용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6·25전쟁 개전 주도의 사실은 남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개전(주도)책임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한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남한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25전쟁 초기에 선제타격계획의 시행으로 전차, 자주포, 항공기 등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전격기동전, 게릴라전 등을 실시한 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입증하였다.

둘째,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제한전쟁 성격의 6·25전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6·25전쟁의 성격이 '제한전쟁', '국제전적 국

30) 국방부, 『國防史』②(서울: 국방부, 1987), p. 329.



지전쟁'이면서 현실전화 양상을 띠는 것은 전쟁 당사자가 일련의 국면전환 용으로 무기 운용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운용 면에서도 변화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기 운용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본다. 핵의 사용이 한국전쟁은 핵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제한된 목적의 전쟁이 가능하였다. 6·25전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였으나 핵무기만은 극히 제한함으로써 제한전쟁이 되었다. 핵의 사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또한 재래식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전쟁 양상은 더욱 제한전쟁화가 되고 이에 따라 국지전쟁화가 되었으며, 6·25전쟁의 경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셋째,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인 면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6·25전쟁 기간 중 군사력 건설은 전쟁 경험을 반영하였으며, 조직·무기체계 면, 전략·전술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6·25전쟁 후 1961년 5월까지의 군사력 건설은 6·25전쟁 발발 직전과 전쟁 기간 중 군사력 건설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달랐다.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기반은 6·25전쟁 경험과 정치적·경제적 면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6·25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된 한국군은 한국이 근대국가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 군사력 건설에 치중되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건설(national building)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시켰으나 후속연구가 긴요하리라고 본다.

(원고투고일 : 2007. 3. 8,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6·25전쟁, 무기체계, 항공기, 함정, 제한전쟁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War as a Characteristics of Limited War and the Role of Weapon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

Kang, Chang-kook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Korean War from 25 June 1950 to 27 July 1953 as a characteristics of limited war and the role of weapon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in the employment aspect of weapon system.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tanks, armored vehicles, small arms, machine guns, mortars, and guns as the mobile weapon system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And also aircraft such as fighter, bomber, cargo, helicopter in the air, aircraft carrier, cruiser, destroyer, frigate on the sea were employed.

I obtained the lessons and effects through the analysis of weapon system employment during the Korean War as the four things.

First, *theory of responsibility(initiative)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which is one of theories of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 proved the inva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thoroughly prepared military pow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in June 1950.

Second, the weapon system employ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which characterized as the limited war and internationally local war, were in correlations. It could find the analysis of the weapon

system employment through the proceedings in each phase during the Korea War.

Third, the weapon system employment affected strongly to the build for the ROK Armed Forces in an after the Korean War.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in the strategic and tactical employment levels of the major maneuvering and fire power weapons of the ground weapon system, fighters and warships employed during the Korean War, we can also obtain the lessons and effects to the war as the followings:

Without of any warning, the NKPA led by 242 T-34 tanks made in USSR, struck all across the 38th parallel with synchronized preparatory field artillery and mortar fire, and occupied Seoul, the Capital, in three days. The ROK Armed Forces could not destroyed the tanks due to its capability. Consequently, the ROK Armed Forces maneuverable in the Korean peninsula, needed strongly tanks. And the friendly forces' tanks such as M24 Chaffee, M26 Pershing, M4A3E8 Sherman, M46 Patton, and M41 Centurion were employed.

The NKPA's 176 SU-76 Armored Vehicles equipped 76.2mm gun, were employed with the tanks and 211 fighters by the NKPA during the Korean War. Its major role was fire support for ground troops with its main gun, and its firepower was effective to the infantry units. Various types of small arms such as M1 Garand and Carbine, M1891 and M1938 Carbine, were employed, but those weapons had limitations for firing.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used PPSH-41 sub-machinegun with hand grenades when they were execution the human wave tactics. In the dimension of employing fire weapons,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employed various small arms separately, but the NKPA and CCF used various types of small arms in separate before reaching their effective ranges.

The reason why the communist forces lost the air supremacy in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sole means of fire support was the artillery

including 122mm howitzers, 76mm guns, and 45 anti-tank guns. To obtain superior in fire, the communist forces concentrated and employed various fire weapons such as howitzers, guns, and mortars, and even they classified the large calibered mortars as the fire weapon, and supported fire power for the combat units.

The importance of air and naval superiority is reconfirmed. After employment of MiG-15 Fighters by the Communist, tactical and skill for air combat was greatly changed. Helicopters were appeared newly for transport, search and rescue, evacuation. Close Air Support was effective for ground forces, but system and equipment for request and equipment need to be developed. Sweeping Mines in the sea was very hard to operate. The value of Aircraft Carrier is reestimated as the key naval forces.

Throughout the Korean War,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the weapon suitable to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introduce and employ, the doctrine need to develop, and the performance of weapon system need to modify and develop, too.

Key Words : The Korean War, Weapon System, Fighter, Warship, Limited War